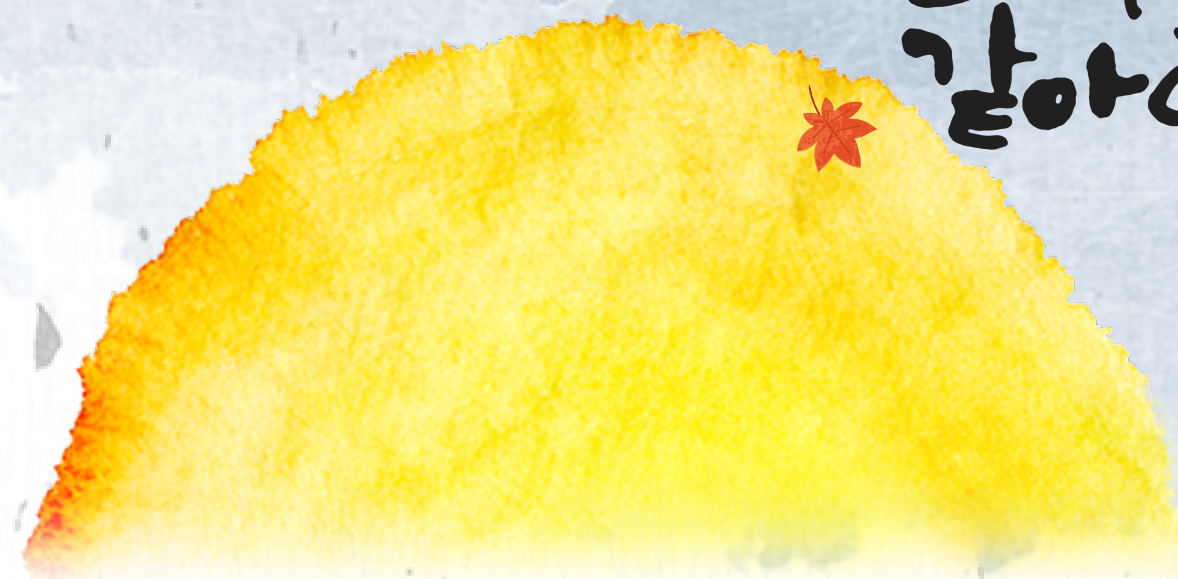




더도말고덜도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 풍요로운 한가위 편안하시길 바랍니다. ❁

존경하는 조합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속노조 경주지부장 정진홍입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인 한가위를 맞이하여, 동지들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 그리고 풍요로움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2025년 교섭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

올 한 해도 경주지부는 단결된 조합원 동지들의 힘을 바탕으로 씩 없는 발걸음을 이어왔습니다. 특히, 지난 4월 17일 1차 지부 집단교섭을 시작으로 9월 4일 24차 교섭에 이르기까지 씩 없이 꾸준히 나아가 결국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조합원 동지들의 연대와 절대적인 성원 덕분입니다.

그러나 교섭의 마무리와 동시에, 우리 앞에 또 다른 중대한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바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야기할 산업 및 고용 불안정성입니다. 금속노조 노동연구원에서도 이로 인한 한국 철강 산업의 위기 가능성을 면밀히 주시하며, 우리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현명한 준비와 더욱 단단한 단결된 대응이 절실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키고, 흔들림 없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현명한 준비와 더욱 단단한 단결된 대응이 절실합니다. 또한, 다가오는 추석 연휴 이후에는 경주지부 금속노조 차기 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는 우리 지부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인 만큼, 조합원 동지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안전하고 행복한 연휴 보내십시오. ❁

이번 한가위 명절만큼은 잠시 치열했던 시름을 내려놓고, 사랑하는 가족, 동지들과 함께 따뜻하고 풍요로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넉넉히 재충전하신 에너지로 남은 한 해도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하며, 변함없이 현장을 지키고 승리하는 노동조합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2025년 9월 23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지부장 정진홍 올림

